

“여성운동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오애리 · 문화일보 국제부 기자



《우먼스쿼터리》의 편집장 크리텐.

구미 여성계에서 여성운동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과거 논쟁이 진보적인 여성운동진영과 보수파 남성 또는 여성 간에 벌어졌다면, 최근의 것은 여성계 내부에서 20세기 여성운동을 재평가하는 맥락에서 불거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른바 '포스트 페미니즘' 논쟁의 도화선이 된 저서는 대니얼 크리텐(35)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현대 여성은 왜 불행한가》와 웬디 샬럿(23)의 《겸양으로의 복귀-잃어버린 미덕을 찾아서》. 두 책은 정통페미니스트들로부터 “세계 각지의 열악한 여성인권침해 실태를 외면한 순진한 발상”이란 비난을 받는 한편 “여성운동의 공과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란 긍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여기에 영국의 저명한 여성운동가 저메인 그리어(60)도 최근 새 저서 ‘완전한 여성’을 출간, 성해방이 초래한 새로운 억압을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크리텐은 캐나다출신으로 미국의 정통 여성운동잡지인 《우먼스쿼터리》의 편집장. 4년 전부터 이 잡지를 이끌어온 그는 지금까지의 논조와 다른 글들을 종종 발표해 여성계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왔다.

크리텐은 저서에서 “남성의 애정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려는 욕망은 성혁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여성의 본능”이라며 “여성이 남성과 가정으로부터 독립해 홀로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텐의 이같은 주장은 자녀를 놀이방에

맡기고 일터로 향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던 수많은 직장여성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웬디 샬럿의 첫 저서 《겸양으로의 복귀》는 여성과 남성간의 '차별' 대신 '차이'를 강조한 저서. 그는 수치심, 프라이버시, 성(性)조심성을 잃어버린 미국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이제 우리 여성은 페미니 미스틱(feminine mystique)과 남성의 진정한 명예를 되찾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건전한 억압이나 내숭쯤으로 치부됐던 겸양의 회복”을 통해 여성이 여성다움과 자기존중심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샬럿은 밀워키주 위스콘신 출신. 윌리엄스 대학 2학년때인 95년 커먼터리지(誌)에 남녀공용 기숙사 목욕탕을 비판한 글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글로 인해 동료학생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기도 했던 그는 졸업 후 현재 뉴욕에서 직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어의 《완전한 여성》도 남녀평등의 이면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저서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남성과의 평등추구가 남성을 모방하려는 결과를 낳았으며, 성해방도 성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억압을 초래했다”며 “남자만큼 경쟁적·공격적·호색적이고 잔인한 것은 남자만큼 나약하고 가엾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성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매력 없다는 관념때문에 미혼여성들이 분노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여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성 스스로 다시 분노할 때”란 것이 그리어의 주장이다.

최근 구미에서 기존 여성운동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저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타임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에 넌더리가 난 미국인들이 성해방을 부르짖었던 히피세대와 여성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

책과



박 시백

